

[翻譯]

## 『離騷』의 주석과 번역(1)

徐 盛\*

『離騷』는 屈原의 대표작이자 『楚辭』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離騷”의 뜻에 대해서 司馬遷은 “근심을 만나다는 뜻과 비슷하다”(離騷者, 猶離憂也.)고 풀이하였고, 班固 역시 비슷한 해석을 내리고 있다. 王逸은 “離는 별이고 騷는 愁다”(離, 別也. 騷, 愁也)고 하여 “방축된 데서 오는 시름”이란 뜻으로 보았다.

굴원의 작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정치적인 역정이나 개인의 심회를 소재로 한 작품군이고, 다른 하나는 신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부류이다. 그런데 『離騷』는 이 두 계열의 요소가 섞여진 예로 自敘傳的인 서정 長詩에 후자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중국 고대 詩史에서 사실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작품과 환상적인 작품은 각기 다른 표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離騷』에서는 이들이 강렬한 감정 속에 결합되어 있다. 작품은 풍부한 상상, 진지한 감정, 아름답고 화려한 언어, 독특한 음조로 정치적 배경 속에 개인의 고결한 성품과 진솔한 고민을 노래하고 있다. 제작시기는 楚 懷王에게 방축된 이후로 보인다.

王逸 이래 역대의 주석가들은 『離騷』를 굴원의 정치적 생애와 연관하여 이해하였고, 그래서 香草와 美人의 비유도 충신과 애국의 뜻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작품을 해석하는 가장 주된 배경을 이룬다. 그밖에 신화 속의 일이나 천상에의 幻遊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있다.

본문은 『離騷』를 두 번의 좌절과 두 번의 환상적 해결이라는 구조로 보고 여덟 문단으로 나누었다. 제 1문단은 자서전의 필법으로 자신의 출신을 서술하고 적극적인 인생관을 표현하였다. 제 2문단은 자신의 정치적 관점과 입장을 천명한 후 군왕을 모시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였다. 제 3문단은 자신의 정치경력 중의

---

\* 열린사이버大 實用語文學部 教授

사건들을 들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 4문단은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은퇴와 추구 사이에서 방황한다. 제 5문단은 女媧의 권고를 서술하였다. 제 6문단은 신화와 역사 등 환상의 세계 속에서 열렬히 사랑을 구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없는 이상의 추구하고 그 좌절을 상징하였다. 제 7문단은 극도의 고통과 복잡한 심리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제 8문단은 靈秀의 권고를 받아들인 후 미망의 정신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환상이 전개된다.

### 제 1문단

帝高陽之苗裔兮，	나는 古帝 高陽氏의 후손으로
朕皇考曰伯庸。	위대한 부친은 伯庸이라네
攝提貞于孟陬兮，	寅의 해에서도 바로 正月 달
惟庚寅吾以降。	庚寅의 날에 나는 태어났노라
皇覽揆余初度兮，	부친께서는 나의 태어날 때의 기상을 바라보고
肇錫余以嘉名。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으니
名余曰正則兮，	이름은 正則이라 지으셨고
字余曰靈均。	자는 靈均이라 하셨네
紛吾既有此內美兮，	내면의 아름다운 성품 이처럼 많은데
又重之以修能。	여기에 덧붙여 뛰어난 능력 갖추었네
扈江離與辟芷兮，	궁궁이와 구릿대를 몸에 걸치고
紉秋蘭以爲佩。	秋蘭을 엮어 허리에 둘렀네

○高陽：五帝(有熊氏 黃帝, 高陽氏 顓頊, 高辛氏 帝嚳, 陶唐氏 堯, 有虞氏 舜)의 하나로 顓頊(전욱)이 재위할 때의 칭호. ○苗裔：苗는 풀의 莖葉으로 뿌리에서 나는 것이요, 裔는 옷의 끄트머리로 옷의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 자손을 뜻한다.(朱熹) ○朕：나. 진시황이 천자의 자칭으로 쓰기 전에는 귀천을 불문하고 일인칭으로 사용하였다. ○皇考：皇은 위대하다는 뜻이며, 考는 亡父. ○伯庸：굴원 부친의 字. 본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攝提：攝提格的 준말. 고대의 “太歲紀年法”은 天宮을 12宮으로 나누고, 12년을 주기로 하늘을 운행하는 太歲(木星)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연도를 기록하였다. 太歲가 寅宮(斗와 牛 사이)을 가리키는 해를 攝提

격이라 했다. (王逸설) 朱熹는 攝提格란 攝提格的 준말이 아니라 별의 이름으로 풀이하여, 北斗의 자루가 攝提星을 가리키는 달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顧炎武는 “世系를 말하면서 어찌 해를 말하지 않고 월과 일만을 말하겠는가”고 반박했다. 역대로 王逸의 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貞 : 바르게 맞추다. 동사. ○孟陬(맹추) : 孟은 시작, 陬는 陬月로 夏曆에서 正月을 말한다. 夏曆의 正月은 建寅으로 孟陬는 孟春正月의 뜻이다. ○降 : 태어나다. 호랑이 해, 호랑이 달, 호랑이 날에 태어났다는 것은 곧 굴원이 호랑이로부터 태어났다는 비유로 바른 도를 행할 운명을 암시한다. ○皇 : 위의 皇考의 준말. ○覽揆 : 바라보다, 관찰하다. ○初度 :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태도. ○肇 : 시작하다. 곧 태어날 때. ○錫 : 주다. 내리다. ○嘉名 : 좋은 이름. ○正則 : 원래 굴원의 이름은 平이고 자는 原이다. 여기서 이름인 平을 풀이하여 ‘공정한 법칙’이란 뜻으로 正則이라 하였다. ○靈均 : 字는 남자 나이 20세가 되어 머리를 묶어 관을 쓸 때 아버지나 친구들이 지어주는 이름이다. 대개 이름과 뜻을 맞추어 짓는다. 여기서는 굴원의 자인 原을 풀이하여 ‘아름다운 평지’라는 뜻으로 靈均이라 했다. ○紛 : 무성하게. ○內美 : 내면의 미덕. ○修能 : 재능. ○扈 : 걸치다, 두르다. 초 지방의 방언이다. ○江離 : 궁궁이. 강가에서 나는 향풀. ○辟芷 : 구릿대. ○紉 : 줄기를 걸치다. ○秋蘭 : 가을에 담자색 꽃이 피는 난초. 『초사』에 나오는 난초는 우리나라의 난초와 다른 품종으로 산과 들에 자생하는 山蘭 종류이다. 이는 앞에서도 향기가 나며 줄기와 가지가 있다. ○佩 : 패식. 패물.

屈原이 조상의 존귀한 내력과 자신의 상서로운 출생 및 아름다운 이름의 유래를 서술하고, 고결한 성품을 비유로 표현하였다.

汨余若將不及兮，  
恐年歲之不吾與。  
朝搴阰之木蘭兮，  
夕攬洲之宿莽。  
日月忽其不淹兮，  
春與秋其代序。  
惟草木之零落兮，

물살같이 빠른 세월 내 따라가지 못해  
세월이 나를 기다리지 않을까 염려하네  
아침에는 언덕에서 목련꽃 따고  
저녁에는 洲島에서 숙망을 뜯네  
해와 달은 멈춤 없이 빨리 흐르고  
봄가을은 번갈아 지나가  
초목이 시들어 떨어짐을 생각하면

恐美人之遲暮。	美人의 늙을까 또한 두려워지네
不撫壯而棄穢兮，	한창 때 악행을 버리지 않으니
何不改乎此度？	어찌하여 이 태도를 고치지 아니한가
乘騏驎以馳騁兮，	만약 그대 준마 타고 달리고자 한다면
來吾道夫先路。	가자, 내 앞에서 인도하리라

○汨(율) : 물이 빨리 흐르는 모양. 시간의 빠름을 비유하였다. 『초사』에선 부사어를 글 앞에 놓는 경우가 많다. ○不吾與 : 不與吾와 같다. 부정어가 있을 때 대명사의 동사 선행 용법.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攀(건) : 뜯다. 초 지방 방언. ○毗(비) : 王逸은 산 이름으로 풀이하였으나 명칭대의 주석가들은 아래 구의 洲와 대구가 되는 일반명사로 보아 '작은 언덕'으로 풀이하였다. ○木蘭 : 목련. ○攬 : 뜯다, 따다. ○洲 : 강물 속에 있는 육지. 주도(洲島) ○宿莽 : 풀이름.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살아온 향초. 이 두 구는 아침저녁 혹은 봄가을로 자신의 미덕과 재능을 수양한다는 비유로 쓰였다. ○淹 : 멈추다. ○代序 : 계절의 순서가 바뀌다. ○惟 : 생각하다. ○美人 : 미인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다. 王逸은 楚懷王을, 朱熹는 楚君을 비유한다고 했지만, 당대 陸善經, 명대 黃文煥 등은 굴원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日月 구 이후는 초나라 왕을 대상으로 하고 말하고 있으므로 초희왕을 비유한다고 보는 왕일의 의견이 타당하다. ○遲暮 : 늦은 저녁, 늙음을 비유하였다. ○不撫壯 : 不는 何不로 새길 수 있고 혹은 語氣를 나타내는 허사로 볼 수도 있다. ○撫 : 의지하다. ○穢(예) : 악행. ○度 : 태도. ○騏驎 : 준마. ○馳騁(치빙) : 내달리다.

굴원은 시간의 빠름과 생명의 짧음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미덕과 재능을 수양하였다. 이는 초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고 군왕을 보좌하기 위한 높은 이상에서 나왔다.

### 제 2문단

昔三後之純粹兮，	고대의 세 제왕은 덕행이 아름다워
固衆芳之所在。	주위에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었네

雜申椒與菌桂兮，	산초와 계수마저 가지고 있었으니
豈維紉夫蕙蒞？	어찌 혜초와 구릿대뿐이었으리?
彼堯舜之耿介兮，	저 堯와 舜은 光明正大하여
既遵道而得路。	바른 도리를 따라 큰길로 나아갔지만
何桀紂之猖披兮，	桀과 紂는 얼마나 허위에 찻는가
夫唯捷徑以窘步。	지름길만 찾다가 결국은 길이 막혔네
惟夫黨人之偷樂兮，	저 黨인들이 일시적 안일만 찾은 탓에
路幽昧以險隘。	국가의 길은 어둡고 험난하네
豈余身之憚殃兮，	내 어찌 일신의 재앙을 무서워하리
恐皇輿之敗績。	거대한 나라의 수레가 넘어질까 두렵네

○三後：三王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중설이 분분하다. 王逸은 禹, 湯, 文王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衆芳：여러 賢臣을 가리킨다. 아래에 나오는 申椒, 菌桂, 蕙, 蒞 등이다. ○純粹：純은 물들이지 않은 실이고 粹는 도정한 쌀이다. 바른 품덕을 비유하였다. ○雜：섞이다. 어우러지다. 곁하다. ○申椒(신초)：중첩된 산초나무. 王逸은 申을 중첩한 모양으로 풀이하였다. ○菌桂：향목. 계수나무의 일종. ○夫：어조사. ○蕙：혜초. ○蒞(채)：구릿대. ○耿介：밝고 바르다 ○何：何等. 얼마나. ○猖披：昌披, 倡披, 昌披, 褻披 등으로도 쓰였다. 음으로 글자를 만든 聯綿詞이다. 王逸은 ‘허리띠를 매지 않은 모습’이라 풀이하였다. 망령되고 거짓된 행동을 가리킨다. 한국어의 ‘창피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다. ○捷徑：지름길. 사잇길은 좁고 위험하며 사악하다는 뜻이 있다. ○窘步：걸기 힘들다. ○黨人：자신의 이익을 위해 뭉친 무리들. 『논어』에 “군자는 모이되 당을 짓지 않는다”(君子群而不黨)란 말이 있듯이 黨이란 말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초 나라 조정의 귀족들을 말한다. ○偷樂：일시적인 안일을 탐하다. ○幽昧：어둡다. ○憚(탄)：거리끼다. 두려워하다. ○皇輿：군왕의 가마. 여기서는 초 나라. ○敗績：戰車가 뒤집어지다. 여기서는 나라가 전복되는 걸 비유한다.

堯舜과 桀紂를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일시적인 안일을 탐하는 黨人の 발호에 국가의 위기를 걱정한다.

忽奔走以先後兮，  
及前王之踵武。  
莛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齎怒。  
余固知蹇蹇之爲患兮，  
忍而不能舍也。  
指九天以爲正兮，  
夫唯靈修之故也。  
初旣與余成言兮，  
後悔遁而有他。  
余旣不難夫離別兮，  
傷靈修之數化。

내 분주히 수레의 앞뒤를 뛰어다니며  
선왕의 업적을 따라잡으려 하였지만  
군왕은 나의 충정 살피지 못하고  
오히려 참언 믿고 불같이 화내네  
나는 본래 직언이 화 될 줄 알았지만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네  
하늘을 가리켜 증명하노니  
이는 오직 군왕을 위해서였네  
처음에 나와 언약하시고는  
나중엔 변하여 다른 마음 가지셨네  
내 이별하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군왕의 마음 자주 변함을 상심하네

○忽：바쁘게. 부사어의 선행 용법. ○先後：동사로 쓰였다. 앞뒤로 뛰어다니다. ○及：따라잡다. ○前王：앞에서 말한 三後. ○踵武：踵은 발뒤꿈치이고 武는 발자취이다. 곧 종적. ○莛：석창포. 향초이다. 여기서는 초희왕을 상징한다. ○中情：情中. 내심. 충정. ○齎怒(제노)：불같이 노하다. ○蹇蹇(건건)：말하기 어려워하다. 직언하다. ○舍：捨. 버리다. ○九天：팔방과 중앙을 합하여 九天이라 한다.(王逸설) 또는 고대 전설에 하늘은 아홉 층으로 되어 있으므로 九天이라 했다. ○正：證. 증명하다. ○靈修：神明을 말한다. 여기서는 楚王을 가리킨다. ○成言：남녀가 서로 약속한 말.(聞一多설) ○遁：변하다. 여기서는 변심하다. ○有他：다른 마음이 있다. ○難：두려워하다. ○數(삭)：자주 ○化：변하다.

굴원이 처한 정치적 역경을 서술하였다. 충정을 가지고 초희왕을 위해 분주히 뛰었지만, 오히려 참언을 들은 군왕에게 배척되었다.

### 제 3문단

余旣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  
畦留夷與揭車兮，  
雜杜衡與芳芷。

나는 넓은 밭에 난초를 재배하고  
또 혜초도 들 가득히 심었네  
작약과 계차를 밭두둑에 나누어 심고  
두형과 구릿대도 섞어 심었네

冀枝葉之峻茂兮，  
願俟時乎吾將刈。  
雖萎絕其亦何傷兮，  
哀衆芳之蕪穢。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때를 기다려 내 장차 수확하려 했더니  
비록 시들어도 슬프지는 않으나  
슬픈 것은 못香草가 惡草로 변하는 것

○滋：기르다. 재배하다. ○九畹(완)：넓은 면적의 밭. 九는 다수를 나타내고, 畹은 밭의 면적을 표시하는 量詞로 30무(畝). ○樹：심다. 동사로 쓰였다. ○百畝：넓은 면적. 百은 많은 수를 표시하고, 畝는 사방 둘레 240步의 면적을 말한다. ○畦(휴)：밭이랑.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 밭이랑을 나누어 심다. ○留夷：작약. ○揭車：게차. 留夷와 揭車 모두 향초이다. ○雜：섞다. 동사로 쓰였다. ○杜衡：杜衡으로 향초의 일종. 위 4구 속의 향초는 모두 유능한 인재를 상징하며, 굴원 자신이 일찍이 많은 인재를 길렀다는 의미이다. ○冀：바라다. ○俟：기다리다. ○刈(예)：베다. 수확하다. ○萎絕：시들어 죽다. ○蕪穢(무예)：황폐해져 더럽혀지다. 자신이 기른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힘을 다하기 바랬으나 대부분 변질되었음을 표현하였다.

정치적 개혁을 위해 인재를 길렀으나, 아쉽게도 등용되지 않았으며, 더욱 슬픈 것은 政敵으로 변하여 오히려 국가에 해가 되었다. 굴원은 더욱 고립되었다.

衆皆競進以貪婪兮，  
憑不厭乎求索。  
羌內恕己以量人兮，  
各興心而嫉妒。  
忽馳騫以迫逐兮，  
非余心之所急。  
老冉冉其將至兮，  
恐脩名之不立。  
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  
苟余情其信姱以練要兮，  
長顛頹亦何傷？  
擘木根以結菝兮，

못 사람들 다투어 재물을 탐하며  
이미 가득 가졌어도 계속하여 탐하네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각박하며  
각기 계책을 세워 남을 배척하네  
바쁘게 뛰어다니며 부귀권세 좇음은  
내가 급히 이루어야 할 일은 아니라네  
노년이 시나브로 다가오니  
아름다운 이름 세우지 못할까 염려하네  
아침에는 목련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저녁에는 국화의 처음 피어나는 꽃을 먹네  
만일 내 마음이 진실로 아름답고 곧바르다면  
꿇주려 얼굴이 뜬다한들 어찌 슬프리오?  
...향초의 뿌리로 구릿대를 휘감아

貫薜荔之落蕊。	승검초의 첫 꽃잎들을 엮고
矯菌桂以紉蕙兮，	계화를 들어 혜초에 매고
索胡繩之纒纒。	호승을 길게 엮어 장식하네
謗吾法夫前修兮，	나는 고대의 성현들을 본받아 치장하였지
非世俗之所服。	세상 사람들의 장식을 차지 않았다네
雖不周於今之人兮，	지금의 사람들과 융화되지 않는다 해도
願依彭咸之遺則。	彭咸이 남긴 준칙을 따르고자 하네

○衆：여러 사람들. 여기서는 초 나라의 권신들. ○競進：다투어 앞서려고 하다. 서로 권력에 붙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貪婪(탐남)：탐하다. ○憑：滿. 초 지방 방언. 가득하다. ○求索：재물을 찾고 구하다. ○羌：發語詞. 초 지방 방언. ○內恕己：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量人：남을 헤아리다. ○忽：분주하게. 부사어 선행 용법. ○馳騫(치무)：어지러이 내달리다. ○冉冉(염)：모르는 사이 조금씩. ○脩名：영예로운 이름. ○落英：落은 시작이란 뜻으로 落英은 처음 피어난 꽃. 아래의 落蕊도 같은 뜻이다. ○信：진실로. ○姱(과)：아름답다. ○練要：정련하고 요약하다. 즉 정신이 번잡하지 않고 집중하다. ○顛頤(함함)：굴주려 얼굴이 누렇게 뜬 모습. ○擘：攬. 손으로 잡다. ○木根：향목의 뿌리. ○薜荔(벽려)：승검초. ○蕊(예)：꽃술. ○矯：들다. ○素：새끼줄을 꼬다. ○胡繩：호승. 향초 이름. ○纒纒(이)：줄이 길고 미끈한 모양. ○謗(건)：發語詞. 초 방언. ○夫：어조사. ○前修：전대의 현인. ○服：패용하다. ○周：합치하다. ○彭咸：王逸은 “殷의 賢臣으로, 군왕에게 충언하였으나 듣지 않자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풀이하였다. 그러나 彭咸이란 이름은 오직 『초사』에서만 나올 뿐이어서 근거가 약하다. 명대 汪瑗은 彭祖의 후예로 굴원과 함께 顛頤의 후손으로 보았지만 근거는 약하다.

굴원은 자신과 黨人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였다. 黨人들은 이기심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남을 배척했지, 굴원은 아름다운 이름과 이상을 위해서였다. 굴원은 고대 인물들과 지금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행동 준칙을 고대의 이상적인 인물들에게서 찾았다.

長太息以掩涕兮，

길게 탄식하고 눈물을 닦으며

哀民生之多艱。  
 余雖好修姱以鞿羈兮，  
 謇朝諝而夕替。  
 既替余以蕙纁兮，  
 又申之以攬茝。  
 亦余心之所善兮，  
 雖九死其猶未悔。  
 怨靈修之浩蕩兮，  
 終不察夫民心。  
 衆女嫉余之蛾眉兮，  
 謠諑謂余以善淫。  
 固時俗之工巧兮，  
 偃規矩而改錯。  
 背繩墨以曲曲兮，  
 競周容以爲度。  
 忳鬱邑余侘傺兮，  
 吾獨窮困乎此時也。  
 寧溘死以流亡兮，  
 余不忍爲此態也。  
 鸞鳥之不群兮，  
 自前世而固然。  
 何方圜之能周兮，  
 夫孰異道而相安？  
 屈心而抑志兮，  
 忍尤而攘詬。  
 伏清白以死直兮，  
 固前聖之所厚。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을 슬퍼하네  
 덕행을 좋아하여 행실을 닦았으나  
 아침에 비방을 당하고 저녁에 파면되었네  
 내가 파면된 것은 혜초를 들렀기 때문  
 더구나 구릿대도 두르고 있었거늘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니  
 비록 아홉 번 죽는다해도 후회 않으리  
 군왕의 분별 없음을 원망하노니  
 시종 사람의 본심을 살피지 못하네  
 못 여자들이 나의 미모를 질투하여  
 내가 음란하다고 헐뜯고 참언하네  
 참으로 세속은 계약에 능란하여  
 법도를 위반하고 원칙을 바꾸네  
 끈은 먹줄을 위배하고 휘어진 선을 좇으며  
 다투어 영합함을 행동의 준칙으로 삼네  
 가슴 답답하여 실의에 우두커니 서 있나니  
 지금 이때 나 홀로 곤궁하구나  
 갑자기 죽어 몸이 내버려진다 해도  
 내 차마 이러한 태도는 취할 수 없네  
 맹금이 다른 새와 무리 짓지 않음은  
 고대부터 원래 그러했으며  
 모난 것과 둥근 것이 합할 수 없으니  
 길이 다른데 어찌 서로 편안하리오  
 억울함을 당하고 마음이 억눌리고  
 조작된 죄목에 치욕을 견디면서  
 청렴결백을 유지하다가 바르게 죽는 것은  
 본디 성현들이 귀중히 여겼던 바이네

○太息：탄식。○掩涕：눈물을 닦으며 울다。○民生：民에 대해선 백성, 굴원 자신, 소인 등 여러 설이 있다. 모두 뜻이 통하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굴원 자신의 깊은 고민과 좌절을 서술하고 있는 중이므로 굴원으로 보아야 적절하다。○好：좋아하다。○修姱：품덕。○鞿羈(기기)：말의 고삐와 굴레. 여기서는 자신의 행실을 다듬고 구속하다。○諝(수)：욕하고 헐뜯다。○替：폐기되다. 파면되다。○纁

(양) : 패용하다. ○申 : 중첩하다. 더하다. ○浩蕩 : 원래 물이 많은 모양을 뜻하지 만, 여기서는 걱정 없이 태평한 모습을 말한다. ○民心 : 사람의 속마음. ○衆女 : 초희왕 주위에 있는 소인들을 비유하였다. ○娥眉 : 누에나방의 가늘고 굽어진 여 성의 눈썹. 부분으로 전체를 표시하는 제유법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뜻하는데, 여 기서는 굴원 자신을 비유하였다. ○謠諑(요착) : 유언비어를 만들다. ○徧(편) : 위배하다. ○規矩 : 規는 콤파스이고 矩는 직각자. 법도를 의미한다. ○繩墨 : 직 선을 만들기 위해 실로 먹을 칠다. ○改錯 : 정당한 조치를 바꾸다. 錯은措와 같 다. ○周容 : 비위를 맞추다. ○忤鬱邑(돈울읍) : 忤은 근심하다. 鬱邑은 가슴이 막 히다. 『초사』에서 3음절 부사어가 흔히 문두에 온다. ○侘傺(차제) : 안절부절못하 다. 실의에 찬 모양. ○濫(합) : 갑자기. ○流亡 : 죽은 몸이 내버려지다. ○鷲鳥(지 조) : 매나 수리처럼 사나운 새. ○方圓 : 네모와 원. 네모는 방정한 자신의 품덕을 비유하고, 원은 소인들의 교활한 처세를 비유한다. 王逸과 朱熹 모두 메모와 원은 장부와 장부 구멍의 형상으로 서로 맞지 않다고 풀이하였다. 이는 제 5문단에서 “不量鑿而正柄兮”로 명확하게 언급된다. ○周 : 습. 어울리다. ○尤 : 허물. 잘못. ○攘 : 취하다. ○話(후) : 더러운 때. 수치. 치욕. ○伏 : 服. 행하다. ○死直 : 정직함으로 죽다. ○厚 : 중히 여기다. 동사로 쓰였다.

굴원 자신이 왜 추방되고 배제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했다. 군왕의 불찰과 세상 의 비방과 함께 자신이 세속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 원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한다.

#### 제 4문단

悔相道之不察兮,  
延佇乎吾將反。  
回朕車以復路兮,  
及行迷之未遠。  
步余馬於蘭皋兮,  
馳椒丘且焉止息。  
進不入以離尤兮,

길을 살피지 않아 화를 입었음을 생각하여  
우두커니 서성이며 장차 되돌아갈까 하네  
나의 수레를 이전의 길로 돌리나니  
해매인 길이 그리 멀지 않았음에네  
난초 핀 물가에서 말을 거닐게 하고  
산초나무 언덕에서 말 타다가 잠시 쉬네  
벼슬에 나갔으나 죄만 얻었으니

退將復脩吾初服。  
 製芰荷以爲衣兮，  
 集芙蓉以爲裳。  
 不吾知其亦已兮，  
 苟余情其信芳。  
 高余冠之岌岌兮，  
 長余佩之陸離。  
 芳與澤其雜揉兮，  
 唯昭質其猶未虧。  
 忽反顧以遊目兮，  
 將往觀乎四荒。  
 佩繽紛其繁飾兮，  
 芳菲菲其彌章。  
 民生各有所樂兮，  
 余獨好脩以爲常。  
 雖體解吾猶未變兮，  
 豈余心之可懲？

물러나 벼슬 전의 초심을 다듬으리  
 연잎을 엮어 윗옷을 만들고  
 연꽃을 모아 치마를 만드네  
 나를 몰라주어도 그뿐인 것을  
 내 마음이 진실로 맑고 향기롭도다  
 나의 관을 우뚝하게 높이 세우고  
 나의 패식을 길다랗게 늘어네  
 세상은 향기와 더러움이 섞여 있지만  
 나의 맑은 품질은 아직 이지러지지 않았네  
 홀연히 고개 돌려 사방을 둘러보고  
 장차 땅 끝 먼 곳으로 구경갈까나  
 패물은 은성하게 주렁주렁 매달려있고  
 향기는 농밀하게 점점 더 짙어지네  
 사람은 제각기 즐거워하는 것이 있나니  
 난 홀로 고결함을 좋아하여 법도로 삼네  
 비록 몸이 부서진다해도 변하지 않으려니  
 어찌 내 마음을 돌리게 하리

○相：바라보다. ○延佇：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反：返. 돌아가다. 앞에서 “비록 아홉 번 죽는다해도 후회 않으리”라고 이미 말했으므로, 여기에서의 “후회한다”는 다른 문맥이다. 이전에는 길을 잘 살피지 않아 세상의 화를 입었으므로 이제 자신의 수레를 돌려 지나온 길의 잘못을 되짚어 본다는 뜻이다. ○及：때를 타다. ○蘭皋：난초 핀 물가의 언덕. ○焉：여기에서. ○止息：멈추어 쉬다. 말을 달리거나 쉬거나 모두 향초가 있는 곳에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결함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進不入：벼슬에 나갔으나 초희왕의 신임을 얻지 못하다. ○離尤：離는罹와 같은 말로 “(나쁜 일에) 걸리다”, “만나다”는 뜻. 尤는 허물. 離尤는 이 작품의 제목인 離騷와 같은 뜻. ○退：벼슬에서 물러나다. ○初服：벼슬하기 전에 입던 옷. 원래의 품덕과 지향을 의미한다. ○芰荷：연잎. 王逸은 마름과 연잎으로 풀이했으나, 아랫구의 芙蓉과 대응하여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招魂』에서도 “芙蓉始發，染芰荷些”로 대응시키고 있으며, 唐詩에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衣와裳：衣는 윗도리,裳은 하의. 이

두 구는 품성의 고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不吾知：不知吾. 부정어를 이끄는 동사의 대명사 선행 용법. 앞에 나온 “不吾與”와 같은 용법. ○已：뿐이다. ○苟：만약. ○信：진실로. ○岌岌：높은 모양 ○陸離：陸離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1) 들쭉날쭉한 모양, 2) 긴 모양, 3) 형태와 색채가 아름답고 특이한 모양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윗 구의 “높은 모양”과 대응하여 “긴 모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 구는 행위의 뛰어난을 상징하고 있다. ○芳與澤：王逸과 朱熹는 윗 부분의 내용과 결합하여 “옷의 향기와 패옥의 윤기”로 해석했으나, 郭沫若과 馬茂元 등은 뒷 구의 전환 관계와 어울리도록 “향기와 더러움”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서는 후자를 채용한다. ○昭質：맑고 빛나는 품질. ○遊目：먼 곳을 둘러보다. ○四荒：荒은 땅 끝으로 四荒은 아득히 먼 사방 땅의 끝. 자신의 울분을 풀려고 “먼 곳으로 구경간다”(遠遊)는 소재는 『楚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이다. ○繽紛：맑고 풍성한 모양 ○菲菲：향기가 짙은 모양. 이 두 구는 올바른 사상과 행위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남을 상징한다. ○體解：고대 혹형의 하나로 사지를 각기 말에 묶어 달리게 하여 죽이는 것. ○懲：징계하다.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은거를 생각하며 변함 없이 자신의 고결한 성품을 닦는다. 이는 앞에서 제기한 주제를 더 전개하였다.

### 제 5문단

女嬃之嬋媛兮,  
申申其詈予。  
曰：“鮀婞直以亡身兮，  
終然殫乎羽之野。  
汝何博謔而好脩兮，  
紛獨有此娉節？  
蓀葺施以盈室兮，  
判獨離而不服。  
衆不可戶說兮，  
孰云察余之中情。  
世並舉而好朋兮，

누나 女嬃는 가쁜 숨 몰아 쉬며  
거듭 나를 꾸짖으며 말하네  
“강직한 鮀은 자신의 안위를 잊고 일했으나  
결국 羽山の 별관에서 죽었다  
너는 어찌하여 입바른 말에 고결함을 좋아하며  
홀로 이런 아름다운 절조를 드러내는가  
녹두풀과 도꼬마리가 집안에 가득 쌓였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치장하지 않느냐  
사람에게 일일이 호소할 수도 없으니  
누가 우리의 진정을 알아주겠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끼리끼리 영합하는데

夫何熒獨而不予聽?"

너는 어이해 외톨이에 내 말을 듣지 않나"

○女媧(여수) : 王逸이 굴원의 누나라고 풀이한 후 역대의 주석가들은 이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명대 이래로 여인의 통칭으로 풀이하기 시작하였다. 女媧가 비록 굴원의 누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문단의 내용과 말투로 보아 순위 여성인 점은 분명하다. ○嬋媛(선원) : 王逸은 “잡아끌다”로 풀이하고, 朱熹는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잡다”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聞一多是 “두려워 숨이 넘어가다”는 뜻의 “暉暉”(탄환)의 假借로 풀이하였다. 여기서서는 후자를 따랐다. ○申申 : 반복하다. 우리말의 신신당부의 신신. ○罍(이) : 꾸짖다. ○鮌(곤) : 夏나라禹의 아버지. 顓頊의 제5대 손으로 굴원과 같이 高陽氏의 후예이다. 鮌은 고대 전적에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치수를 잘못하여 舜에게 살해된 인물이며, 다른 하나는 현인으로 직언을 하다 죽은 사람이다. 『한비자』의 기록을 이 대목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堯가 천하를 舜에게 전하려 하자 鮌이 간언하여 말하길 ‘불길하다. 어찌하여 천하를 필부에게 전하는가!’라고 했다. 堯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병사를 일으켜 羽山의 들에서 鮌을 죽였다.” ○婞直(행직) : 강직 ○亡身 :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다. 亡은 忘. ○羽 : 羽山. 산둥성 봉래현 동남쪽에 있는 산. ○博騫 : 지나치게 직언하다. ○婞節 : 아름다운 절조. ○蕢(자) : 풀을 모으다. 여기서서는 동사로 쓰였음. ○葍(녹시) : 녹두풀과 도꼬마리로 평범한 풀. 일반 사람을 상징한다. ○判 : 다르게. 『초사』에 자주 나오는 부사어 선행 용법. ○服 : 패용하다. ○戶說 :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말하다. ○余 : 우리들, 여기서서는 일인칭 복수 대명사. ○熒獨 : 고독하다. ○不予聽 : 不聽予. 내 말을 듣지 않다.

누나 女媧의 권고. 여수의 권고는 혈육의 말이란 점에서 더욱 절실하며, 세상 사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란 점에서 굴원의 행위 및 사상과 강렬하게 대비된다.

依前聖以節中兮，  
喟憑心而歷茲。  
濟沅湘以南征兮，  
就重華而陳詞：  
“啓九辯與九歌兮，  
夏康娛以自縱。

옛 성인의 법도에 따라 중용을 지켰는데  
가슴 가득 한스럽게도 이러한 일들을 거쳤네  
沅水和 湘水를 건너 남쪽으로 가서  
순임금에게 나아가 내 말을 아뢰네  
“夏의 啓는 하늘에서 九辯과 九歌를 흠쳐왔기에  
夏代의 군왕들은 쾌락을 즐기며 방종하였오

不顧難以圖後兮，  
五子用失乎家巷。  
羿淫遊以佚畋兮，  
又好射夫封狐。  
固亂流其鮮終兮，  
浞又貪夫厥家。  
澆身被服強罔兮，  
縱欲而不忍。  
日康娛而自忘兮，  
厥首用夫顛隕。  
夏桀之常違兮，  
乃遂焉而逢殃。  
後辛之菹醢兮，  
殷宗用而不長。  
湯禹儼而祇敬兮，  
周論道而莫差。  
舉賢而授能兮，  
循繩墨而不頗。  
皇天無私阿兮，  
覽民德焉錯輔。  
夫維聖哲以茂行兮，  
苟得用此下土。  
瞻前而顧後兮，  
相觀民之計極。  
夫孰非義而可用兮，  
孰非善而可服。  
陸余身而危死兮，  
覽余初其猶未悔。  
不量鑿而正柄兮，  
固前脩以菹醢。”  
曾歎歎余鬱邑兮，  
哀朕時之不當。  
攬茹蕙以掩涕兮，  
霑余襟之浪浪。

환난을 돌보지 않고 후대를 도모하지 않아  
그의 다섯 아들은 內訌을 일으켰다오  
夏의羿는 지나치게 유락을 탐하고 사냥에 빠져  
大狐 같은 들짐승 쏘기를 좋아하였오  
본디 음란한 무리는 끝이 좋지 않는 법  
寒浞이 그를 죽이고 아내까지 탐하였오  
寒浞의 아들 澆는 강하고 힘있는 力士로  
방종하여 질제할 줄 몰랐오  
날마다 쾌락을 탐하다가 위태로움도 모르더니  
이 때문에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오  
夏의 桀은 바른 도리를 어기더니  
마침내 재앙을 당하고 말았오  
殷의 군왕 紂는 충신을 소금에 절이고 젓갈로 만들더니  
殷 왕조는 이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오  
殷의 湯과 夏의 禹는 엄숙하고 경건했오  
周의 文王과 武王은 치국의 방도에 잘못이 없었오  
현인을 등용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법도에 따르고 치우침이 없었오  
하늘은 공평무사하시어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베푸셨오  
오직 성인과 철인만이 그 덕행으로 해서  
비로소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오  
前代를 바라보고 지금을 돌아보니  
인간의 최상의 법칙을 살필 수 있오  
義가 아닌데 어찌 행할 수 있으며  
善이 아닌데 어찌 따를 수 있으리오  
내 몸이 위험에 처해 곧 죽는다해도  
처음의 내 뜻을 후회하지 않으리오  
장부 구멍을 재어보지 않고 장부를 꺾었으니  
옛 현인들이 이 때문에 소금에 절여졌오”  
내 마음은 답답하여 거듭 흐느끼고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슬퍼하네  
부드러운 헤초로 눈물을 훔치자니  
눈물은 오히려 옷깃을 적시며 철철 흐르네

○節中 : 공정하게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喟(위) : 탄식하다. ○憑心 :憑은 憑, 憑心은 분노의 마음. ○歷茲 : 이러한 모든 곤경을 거치다. 혹은, 지금에 이른다. ○沅湘 : 沅水와 湘水. 호남성 경내에서 洞庭湖로 흘러드는 두 줄기 큰 강. ○南征 : 南行. ○重華 : 舜의 이름. 舜은 謚號. 굴원이 왜 舜을 찾아가 호소하느냐에 대해서 역대 주석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누나 女嬃가 굴원을 鮫에 비유하자 鮫을 죽였다는 舜에 찾아가 따져보겠다는 설(명대 李陳玉), 女嬃의 말을 듣고 의혹이 생겨 舜이 죽은 沅水와 湘水의 남쪽 九疑山으로 가서 호소하게 되었다는 설(청대 蔣驥) 등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舜은 南巡하다가 지금 호남성 寧遠縣 소재의 蒼梧山의 들에서 죽었기에 초나라 사람들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啓 : 夏나라의 군주 禹의 아들. ○九辯與九歌 : 九辯과 九歌는 천상의 음악으로 啓가 하늘에 올라가 훔쳐 왔다고 한다.(『山海經』) 이들은 『초사』중의 「九辯」·「九歌」와 다르다. ○夏 : 夏나라. 여기서는 啓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夏나라. ○五子 : 啓의 다섯 아들. 내란을 두 번 일으킨다. ○用失乎 : 원래는 用乎인데 잘못하여 用失乎가 되었다.(王引之) 아래에 나오는 “厥首用夫顛隕”의 “用夫”, “殷宗用而不長”의 “用而”와 같은 용법. 뜻은 “이로 인하여” ○家巷 : 巷은 閭, 闈과 같은 뜻. 家巷은 內閭, 즉, 내란. “다섯 아들의 내란”에 대해서는 『逸周書』에 “다섯 아들이 禹의 훈계를 잊고 모두 난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다. ○羿 : 夏나라 때의 有窮國의 君長. 啓의 아들 太康 때에 이르러 한나라가 약해지며 내란을 겪자 이 틈을 타 왕위를 찬탈하였다. ○淫遊 : 淫은 지나치다. ○佚 : 방종하다. ○斃 : 사냥하다. ○封狐 : 大狐. 맹수를 의미함. ○浞(착) : 寒浞. 羿가 통치할 때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된다. 사냥에서 돌아온 羿를 죽여 삶은 후 羿의 아들에게 먹도록 한다. 羿의 아들이 차마 먹지 못하자 그들마저 죽인다. ○厥家 : 그 처, 즉, 羿의 妻室. ○澆(요) : 寒浞과 羿의 妻 사이에 태어난 아들. 夏의 相을 죽이나 나중에 相의 아들 少康에게 살해당한다. 『논어』에 “羿는 활을 잘 쏘고 稟(즉, 澆)는 배를 흔들 수 있으나 모두 제 명에 죽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強圉(강어) : 강하고 힘있다. ○不忍 : 자제하지 못하다. ○用夫 : 이로 인해. ○常違 : 違常. 바른 도리를 위배하다. ○後辛 : 後는 군주, 辛은 殷나라의 왕인 紂의 이름. 은나라 망국의 폭군. ○菹醢(저해) : 고대 흑형의 하나로 사람을 죽여 짓이겨서 젓갈을 담는 형벌. 菹와 醢는 같은 뜻으

로 고기나 살을 짓이긴다는 뜻. 고대 전적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많다. “예전의 은나라 紂王은 천하를 어지럽히고 鬼侯를 포로 떠서 제후들이 먹게 했다”(『예기』), “紂王은 九侯를 짓갈로 만들고, 鄂侯를 포로 떴다”(『사기』), “鬼侯의 여인을 짓갈로 만들고, 梅伯의 뼈를 절었다”(『회남자』), “啓九辯與九歌兮”부터 여기까지 16구는 모두 정도를 잃은 啓, 羿, 浞, 澆, 桀, 紂 등 여섯 군주의 패망을 말하고, 다음 4구는 바른 정치를 행한 夏, 殷, 周 세 왕조의 개국 군주를 서술하고 있다. ○嚴 : 조심하다, 엄정하다. ○祗敬 : 祗와 敬은 같은 뜻으로 공경하다. ○周 : 周나라. 여기서의 주나라 초기의 文王, 武王, 周公을 가리킨다. ○論道 : 치국의 도리를 의논하다. ○阿 : 私와 같은 뜻. 치우치다. ○錯 : 措와 같은 뜻으로 안배하다. ○用此 : 이때의 用은 향유하다. ○計極 : 計는 계획, 極은 최상. 그러므로 計極은 인간을 위한 최상의 법칙. ○服 : 用과 같은 뜻, 쓰다. ○跖(적) : 위험에 가깝다, 위태롭다. 跖余身은 余身跖. ○初 : 처음의 뜻. ○鑿 : 기물의 구멍. 여기서서는 장부 구멍. ○正柄 : 正은 짝아 맞추다. 柄(예)는 장부. 여기서 말하는 “구멍을 재어보고 장부를 짝다”(量鑿正柄)는 군왕에 자신을 맞추는 뜻이자 시세의 변화에 임시변통으로 맞추는 뜻. 이 마지막 4구는 굴원이 女嬃에 대한 답변을 요약한 것으로 자신의 견결한 뜻을 재차 천명하고 있다. ○曾 : 屢. 반복하여. ○歔歔(허회) : 의성어. “흑흑”에 해당한다. 울 때 목이 매어 나오는 소리. ○鬱邑 : 걱정되어 답답함. ○茹惠 : 부드러운 혜초. ○浪浪 : 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는 모양.

현능한 군주 舜에 나아가 자신의 뜻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굴원은 고급 역사의 득실을 나열하고 그 가운데 중정의 도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자신의 뜻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말했다.

#### <參考文獻>

- [東漢]王逸注, [宋]洪興祖補注, 『(楚辭章句)楚辭補注』, 中華書局, 1957年.  
 [宋]朱熹, 『楚辭集注』,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明]王夫之, 『楚辭通釋』, 上海人民出版社, 1975年.  
 [清]蔣驥, 『山帶閣注楚辭』, 中華書局上海編輯所, 1958年.  
 [清]戴震, 『屈原賦注』, 中華書局, 1999年.

馬茂元, 『楚辭選』, 人民文學出版社, 1958年.

金開誠·董洪利·高路明, 『屈原集校注』, 中華書局, 1996年.